

일본 경찰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

안황권* · 안정준**

요 약

일본의 경비업법과 경비산업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한 역사와 발전과정은 양국 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크다. 일본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은 교육, 범죄예방, 방재 및 복구, 생활안전 등의 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협력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시민단체·경비업협회·경비업자 등은 국민의 안전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 Study on the Partnership of the Japanes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hn, Hwang Kwon* · Ahn, Chung Joon**

ABSTRACT

The security law and security industry of Japan have a great impact on Korea. In a modern sense, there are little large disparities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However, the way they look at private security is not the same in large part. In Japan, private security companies are highly regarded by Japanese people as organizations that guarantee their safety, owing to the efforts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mselves, the National Security Association and civic groups. Private security has especially been approved and supported since it was decided in the anticrime cabinet council in December, 2003, in line with the ac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anticrime society to boost private security as an industry to ensure people's safety in daily routine life by curbing crimes that might pose a threat to peaceful life. Afterwards, there has been a dynamic collaboration between the Japanes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n terms of education, crime prevention, disaster prevention/restoration and everyday life safety. As for Korea,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is increasingly stressed, and it's required to strengthen their partnership to ensure successful crime prevention in consideration of Japanese partnership cases. In Japan, the police, civic groups, the security association and security companies make every effort to satisfy Japanese people's safety needs in diverse ways and take disaster-prevention measures as well.

Key words : Private Security, Police, Security Industry, Partnership, Japanese police

접수일(2012년 10월 8일), 수정일(1차: 2012년 10월 25일, 2차: 2012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2012년 10월 30일)

★ 본 논문은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2012 하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가필한 것임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경기대학교 산업보안학과

1. 서 론

현대사회의 범죄양상과 피해는 정보화, 도시화 등에 의해 과거 어느 시기보다 예측불가능해지고 있다. 아울러 현대행정의 민영화, 개방화, 공사행정 협력 등으로 인하여 시큐리티 분야에서도 공경비와 민간경비 영역 간의 경계가 완화되고 공경비 영역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치안공동생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공경비는 치안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시민은 단순히 수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그러나 각 부문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함에 따라 전통적인 치안시스템만으로는 급변하는 범죄환경에서 적절한 대응과 대처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일본의 범죄 발생률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 낮기도 하지만, 더구나 최근에는 치안공동생산활동 등으로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생활안전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문제를 자치단체와 주민, 사업자가 일체가 되어 풀뿌리 방법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의 민간경비업은 국민의 자율방범활동을 보완·대행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사회체계 속에서 필요불가결한 서비스 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더구나 1995년 한신 대지진과 2011년 관동 지역 동북대지진 재해 당시는 신속한 재해복구지원활동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안전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일본의 민간경비가 국민의 안전과 안심센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민간경비의 꾸준한 노력과 성장이 바탕이 되었으며 또 경찰의 신뢰와 인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양자의 신뢰와 협조는 이제 여러분야에서 협력하여 치안 공동생산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기술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일본 경찰과 민간의 협력 근거·주체

2.1. 경찰과 민간의 방법협력 근거

2.1.1 생활안전조례의 의의

일본 경찰과 민간의 방법을 위한 협력 근거는 지방 자치단체의 치안유지에 관한 조례인 생활안전조례가 그 기본이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식계발, 방범자원봉사에 대한 조언 등의 지원을 하고 주택, 도로, 공원 등, 학교 등에 관한 방범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979년 나가오카고시(長岡京市) 방법추진에 관한 조례가 최초이며,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중에서는 2002년에 오사카부(大阪府)가 최초이며, 2011년말 현재 27개 도도부현에 제정되어 있다.

생활안전조례가 급속히 제정된 것은 형법범 인지총수가 1993년 180만1,150건으로 전후 최고를 기록한 것을 계기로 1994년 경찰법 개정에 의해 경찰청이 생활안전국을 개설하고, '지역에 대한 범죄, 사고, 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 즉, 지역안전활동을 보다 강하게 추진한 것이 배경이다. 조례의 대부분은 방법협회가 해당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요청 또는 경찰이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요청하여 제정되었다[6].

2.1.2 생활안전조례의 내용

생활안전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도쿄도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조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란 지역사회의 주민, 사업자 및 자원봉사자에 의한 자주적인 방법활동의 추진 및 범죄방지를 고려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는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주민 등의 제휴 및 협력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미치는 범죄방지에 관해 자치단체, 주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나아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주민, 사업자의 책무와 추진체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광역인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의 책무는 주민 등이 제휴하고 협력하여 안전·안심 마을만들기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할 책무를 가지며, 이 시책의 실시 및 주민 등의 안전·안심 마을만들기에 관한 활동에 대해 지원과 협

력을 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한편 주민의 책무는 스스로 안전 확보에 노력하는 동시에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데 노력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그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사업 활동에 관해 스스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안전·안심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깊게 이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단체 및 도민 등과 협동하여 안전안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며,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기초단체 및 도민 등과 협동하여 안전안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는 책무가 있다.

자치단체는 주민 등이 하는 범죄방지를 위해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위해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서장은 주민 등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범죄방지를 위해 자주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관할 구역에서 범죄발생 상황 등의 필요한 정보제공을 한다.

이 조례에서는 도로, 공원, 주택, 주차장, 주택 등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지침을 제정할 책무가 자치단체장 및公安위원회에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점포 또는 특정 소매점포 등은 방범을 고려한 구조, 설비 등을 해야 하며 경찰서장은 방범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적 조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교육위원회,公安위원회는 공동으로 학교 등에서 아동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침을 제정해야 하며, 학교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당해 학교 등의 시설 내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의 통학, 통원 등에 제공되는 도로 및 아동 등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원, 광장 등의 관리자, 주민, 아동 등의 보호자 및 학교 등의 관리자와 제휴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도 통학로 등에서 아동 등이 위해를 당하거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에 통보, 피난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협력 주체

2.2.1 일본의 경찰제도

일본 경찰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서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찰청과 그 지방기관인 7관구(東北, 關東, 中部, 近畿, 中國, 四國, 九州)에 경찰국이 설치되어 있다[6]. 경찰청과 관구경찰국은 주로 정책·관리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수사·취조 등 경찰의 본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역할은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에 위임하고 있다. 도·도·부·현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두어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하고 있다. 도·도·부·현 경찰에는 경찰본부(동경도는 경시청), 경찰서가 있다. 경찰서의 하부기구로는 코반(交番)과 주재소가 있다.

경찰청 장관관보 및 각 관할당부서는 장관관보(長官官房), 생활안전국(生活安全局), 형사국(刑事局), 조직범죄대책부(組織犯罪對策部), 교통국(交通局), 경비국(警備局), 외사정보부(外事情報部), 정보통신국(情報通信局)이 있으며, 각 해당부서의 업무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일본 경찰청 각부서의 업무 내용

담당 부서	업 무 내 용
장관관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밀에 관한 업무 ○장관의 관인 및 청인 관리 업무 ○공문서류 수신, 발송, 편집, 보존 업무 ○소관 행정에 관한 기획, 입안 및 종합조정 ○소관 행정에 관한 정책 평가에 관한 업무 ○법령안의 조사에 관한 업무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유지시설에 관한 업무 ○경찰직원 인사 및 정원에 관한 업무 ○감찰에 관한 업무 ○경찰교육에 관한 업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업무 ○기타 기관 소관에 관련된 업무
생활안 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사고 등의 사안에 관련된 시민생활안전과 평온에 관한 업무 ○지역경찰 및 순찰에 관한 업무 ○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 ○본안경찰에 관한 업무
형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경찰에 관한 업무 ○범죄감식에 관한 업무 ○범죄통계에 관한 업무
조직범 죄대 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사경찰에 관한 사무 중 국제적 범죄조사에 관한 업무 ○형사경찰에 관한 사무 중 국제형사경찰기관과의 연락에 관한 업무 ○폭력단 대책에 관한 업무 ○약물 및 총기에 관한 범죄 단속에 관한 업무

	무 ○조직범죄 단속에 관한 업무 ○범죄에 의한 수익 이체방지에 관한 업무 ○국제조사공조에 관한 업무
교통국	○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되며 교통경찰에 관련된 업무
경비국	○경비경찰에 관한 업무 ○경위(警衛)에 관한 업무 ○경호에 관한 업무 ○경비실시에 관한 업무 ○경찰법 제71조의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업무
외사 정보부	○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되며 경비경찰에 관한 업무중 외국인 또는 활동 본거지가 외 국에 있는 일본인과 관련된 업무
정보 통신국	○경찰통신에 관한 업무 ○소관 행정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기획 및 기술적 연구 또는 전자계산 조직의 운영에 관한 업무 ○범죄 단속을 위한 정보기술 해석에 관한 업 무 ○소관 행정 사무능률 증진에 관한 업무 ○범죄통계를 제외한 경찰통계에 관한 업무

자료: 일본경찰청(www.npa.go.jp, 검색일 2012. 8. 10)

2.2.2 일본의 방법관련 시민단체

2.2.2.1 전국방법협회연합회

1962년 3월 임의단체로 설립된 전국방법협회연합회는 1963년 5월 재단법인을 거쳐 2012년 1월 4일부터는 공익재단법인이 되었다. 이 단체는 주로 방법사상·지식의 보급, 각성제 등 약물남용 방지, 유흥환경 정화, 폭력단 배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밝게 살 수 있는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방법협회연합회는 동경을 시작으로 홋카이도에 서 오키나와에 이르기 까지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방법협회와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재단법인 전국방법협회연합회는 전국풍속환경정화협회와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가 연합되어 있으며, 지역방법협회연락협의회가 8개 지구(中部, 近畿, 中國, 北海道, 東北, 關東, 四國, 九州)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회의 정회원은 도도부현 방법협회(풍속환경정화협회) 47단체, 도도부현 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 47단체, 특별회원 기업 등 7단체, 찬조회원 기업 등 35사 단체, 전국폭력추방운동추진센터협력회원 146사가 있으며, 지

구 방법협회는 경찰서 관할별로 1,206단체, 시정촌 방법협회 3,188단체가 있고 그 아래 방법연락소, 방법추진원, 방법지도원과 방법자원봉사단체가 있다[8].

2.2.2.2 자주방법 자원단체(volunteer)

2011년 12월말 현재 자주방법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자원봉사단체는 45,672단체에 구성원은 271만3,96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단체들 중 1개월에 10일 이상 활동하는 단체가 4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활동시간대를 보면 야간에 활동하는 단체는 19,354단체로 전체 중 42.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 방법활동을 위하여 조례 등에 따라 경찰은 필요한 지원과 범죄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안전기획과는 자주방법 볼란티어 네트워크를 위해 활동지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표 2> 일본 방법지원 단체 현황

연도	단체 수	구성원 수
2003	3056	177,831
2004	8079	521,749
2005	19515	1,194,011
2006	31931	1,979,465
2007	37774	2,342,279
2008	40538	2,501,175
2009	42762	2,629,278
2010	44508	2,701,855
2011	45672	2,713,968

자료: 일본경찰청(www.npa.go.jp, 검색일 2012. 10.22)

2.2.3 전국경비업협회

2.2.3.1 전국경비업협회의 설립배경

일본의 현대적 의미의 경비업은 1962년 3월에 (주)大日警, 7월에 日本警備保障株式會社(SECOM의 전신)가 설립되고,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거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972년에는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에 대한 법제화를 하였다. 그 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최첨단 전자기술을 민간경비업에 활용하면서 일본 최대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은 범죄의 증가와 테러의 위협에 따라 대두되었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 범

죄 발생률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갈수록 사회전체를 직접 위협에 빠뜨리는 유형의 범죄가 출현하고 흉포화된 범죄가 증가하면서 체감치안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치안정세의 심각화에 수반하여 국민의 자주 방법활동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비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동시에 적절한 경비업무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테러의 위협 등으로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의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제적 요청을 근거로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경비원의 배치가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본은 1980년 4월 1일 감독관청인 경찰청 허가에 의해 사단법인 전국 경비업협회(전경협)가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으로는 경비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고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회의 주요사업내용으로는 ① 회원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도, ② 경비원 교육담당자의 교육훈련 및 자격 부여, ③ 경비원 등의 교육훈련 및 관련 자격 부여, ④ 경비업에 관한 홍보 및 출판물 간행, ⑤ 경비업무의 적정화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⑥ 경비용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판매, ⑦ 방법활동, 폭력활동 및 사고예방활동 추진, ⑧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 있다((社)全國警備業協會, 2011b: 20) [3].

또한 협회는 이러한 주요사업내용과 관련하여 경비업법 제2조의 규정을 포괄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을 1호업무(시설경비), 2호업무(혼잡경비), 3호업무(운반경비), 4호업무(신변경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업무의 유형은 ① 사무소, 주택, 흥행장, 주차장, 유원지(이하 '경비업무 대상시설'이라함)에서의 도난 등의 사고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② 사람 또는 차량으로 혼잡한 장소 또는 이들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부상 등의 사고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③ 운반중인 현금, 귀금속, 미술품 등에 대한 도난 등의 사고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 ④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가 있다(일본 경비업법 제2조 1~4).

이러한 경비업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전국의 경비업자는 약 9,000 회원사이며, 업무에 종사

하는 경비원은 약 54만 명에 달하는 대형산업군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회공공 안전의 일선에서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2.2.3.2 경비산업 현황

2.2.3.2.1 경비업자 수, 매출액 및 경비원 수

경비업자는 도도부현(都道府縣) 공안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11년 12월 말 현재 경비업자는 9,058개로 2010년도 대비 48개의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1972년에 경비업법이 시행된 당시와 비교하면 11.7배가 증가된 것이다.

2.2.3.2.2 경비업무 및 기계경비업자 현황

전체경비업무 중에서 시설경비업무는 35.3%, 교통유도경비업무가 34.7%, 혼잡경비업무가 19.1%, 기계경비업무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경비업체 수는 2011년 말 현재 741개이며, 전년도보다 9개(1.2%)가 감소하였다. 기계경비 대상 시설 수는 262만8,574개로 전년도보다 4만8,708개(1.9%)가 증가하였다.

2011년 12월말 현재 기지국 수는 939개, 대기소 수는 9,604개, 전종경비원 수는 33,129명, 기지국 근무원 수는 5,347명, 전용순회차량 수는 15,136대, 대상시설 수는 2백62만8,574개이다.

2.2.3.2.3 경비원 자격증 취득현황

경비원 등의 검정제도는 2004년 개정 경비업법의 시행에 의해 일본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직접검정)과 등록강습기관이 시행하는 강습회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 이후 검정 합격증명서의 교부상황은 1급검정이 누계 2만1,534명, 2급검정은 누계 16만6,775명이다. 2011년도의 1급검정취득자는 3,366명이고, 2급검정취득자는 17,223명으로 나타났다.

3. 일본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 현황

3.1. 방법순찰활동모델

2004년에 도입한 민간순찰차 제도는 민간인 차량이 경찰에 등록하면 파단 경광등을 달아줘 순찰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등록된 차량은 4만대가 넘는데, 구매자금은 기업이, 연료비는 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있다.

경비업체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색회전등 장착차량에 의한 방법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기관과 자치단체와의 신뢰관계를 높이고 것이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착한 활동으로 실효성이 크고 크게 어필되는 활동이다((社)全國警備業協會, 2009a: 17).

(사)전국경비업협회 산하 지방협회가 방법순찰활동을 하는 지역은 홋카이도(北海道), 오사카(大阪), 고우치(高知), 후쿠오카(福岡) 등 4개 부현(府縣)이다.

2009년 9월 1일 활동을 시작한 후쿠오카현(福岡縣) 경비업협회는 2003년 5월에 후쿠오카 경찰본부와 체결한 '가두범죄 등 억제협력협정'에 따라 후쿠오카현 경비업협회 경비업방법조합연락협의회 회칙을 제정하고 6월 10일에 경비업방법조합, 경비업 방법연락협의회 등 관계단체가 참가하는 '후쿠오카현 경비업협회 경비업 방법조합연락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동협의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청색방법패트롤활동'을 준비하였다. 9월 1일에는 경비차량에 의한 청색방법순찰차 37대와 대장(경비업협회장)이하 150명이의 패트롤대원이 구성되었다. 청색순찰활동은 원칙적으로 1주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범죄발생 상황이나 경찰기관의 요청 및 정보제공에 따라 수시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社)全國警備業協會, 2009a: 18).

이 순찰대의 특징은 ① 모든 순찰차량이 현(縣) 일원을 순찰구역으로 하고 있다. ② 경비회사의 사명이 표시된 차량을 순찰차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③ 순찰할 때에 대원은 자사의 제복을 착용하고 순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社)全國警備業協會, 2009a: 18).

大阪府 협회는 2009년 4월 협회 직할부대인 '오사카(大阪) 경비협회 안전패트롤대'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홋카이도(北海道) 협회는 2006년 12월 1일 '홋카이도 경비협회 패트롤대'를 조직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社)全國警備業協會, 2009a: 20). 고우치현(高知

縣) 경비협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패트롤활동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2009년 10월 19일 현청(縣廳)에서 고우치현(高知縣), 고우치 교육위원회, 고우치 경찰본부, 고우치 경비업협회 등 4자간 '안전·안심도시만들기 협정조인식'을 갖춘 후 고우치 경찰본부에서 '고우치현 경비업협회 청색방법패트롤대'의 발족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다((社)全國警備業協會, 2009b: 34).

3.2.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와 성원

일본에서 민경협력은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2003년 12월 개최된 '범죄대책각료회의'에서 '범죄에 강한 사회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신변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경비업을 생활안전산업으로 활용하자는 결정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문제는 PPP(Police-Private-Partnership)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에서 경찰이 민간경비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상징적인 예는 매년 (사)전국경비업협회 창립총회에 경찰청장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이 자리에서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협력에 대하여 경찰청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비협회의 창립기념일이나 총회에 생활안전과장이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과는 비교가 되는 사례이다. <표 3>은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협력에 대한 표창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경찰의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협력에 대한 표창 현황

년도 구분 협력내용		2010			2011		
		총수	경비 업자	경비원 (근무중)	총수	경비 업자	경비원 (근무중)
총수		81	8	73(65)	73	6	67(65)
통 보	형법범	10	3	7(7)	18		18(18)
	특별법 범	3		3(1)	2		2(2)
검거 현장 협력	형법범	19	2	17(17)	25	4	21(21)
	특별법 범	13		13(16)	8		8(8)
현장 범 체포	형법범	15	1	14(13)	10		10(10)
	특별법 범	1		1	3		3(3)
기타		20	2	18(12)	7	2	5(5)

자료: 日本警察廳(2011: 9), 日本警察廳(2012: 9).

3.3. 민경 교육협력모델

흔히 경찰과 민간경비의 교육모델은 경찰교육기관에서 민간경비 관련자가 주로 교육을 받는 형태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관동관구 경찰학교로부터 위탁을 받아 새로운 검정기술시험원이 되기 위한 민간경비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비업담당자양성전과(警備業担当者養成専科)’라는 교육연수를 (사)전국경비업협회의 연수센터 후지노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표 4>. 민간경비 교육기관이 주체가 되어 경찰에 대한 경비업 관련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표 4> 민간경비교육기관의 경찰에 대한 2009년 교육연수 내용

교육기관	교육기간	수강대상	수강과목
(사)전국경비업협회 연수센터 후지노	2009 4.20~21	각 도도부현 경찰의 경비업담당자 25명	· 시설경비 · 교통유도경비 · 혼잡경비 · 귀중품운반경비 · 핵연료물질등 위험물질운반경비
(사)전국경비업협회 연수센터 후지노	2009 10.5~6	각 도도부현 경찰의 경비업담당자 25명	· 시설경비 · 교통유도경비 · 혼잡경비 · 귀중품운반경비 · 핵연료물질등 위험물질운반경비

자료: (사)전국경비업협회(2010), 2009년도 사업경과 보고서.

교육내용으로는 시설경비, 교통유도경비, 혼잡경비, 귀중품운반경비, 핵연료물질 등 위험물질운반경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도도부현의 경찰의 경비업담당자를 매회 25명씩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한 경비업담당자들은 1급검정자격시험 및 2급검정자격시험 시행 시 자격검정시험 감독관으로 활동하게 된다(中本貴士(일본전국경비업협회, 2012. 8. 3 전화인터뷰).

3.4. 재해 시 민간경비 협력모델

일본의 (사)전국경비업협회는 재해지역의 재건을 위해 피해주민들에게 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경찰 및 관계 산업체(경비업

자)의 협조와 연계를 통하여 적극적인 치안방법활동을 추진하였다. 1995년 한신 대지진(阪神地震)을 계기로 경비업의 사회적 역할이 기대되면서 동년 11월에 북해도경비협회가 홋카이도 시장(市長)과 재해 시 지원협정을 체결한 후 각 지방협회가 지사 또는 경찰본부장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한신 대지진에 파견된 경비원은 약 2,000여 명으로 피해지역 복구와 화재 진압에도 활동하였다(田中智仁, 2009: 316). 이후 2006년부터는 지방경비협회가 정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재해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방재회의에 참여하는 지방협회도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가의 준공경비단체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는 일본의 (사)전국경비업협회는 재해 발생시 ‘일본 경시청 생활안전총무처’로부터 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경비업무 실시를 요청 받아 피해지역에 대하여 각종 안전을 책임지는 경비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써 2011년 3월 11일 東日本 지진이 발생한 후 (사)전국경비업협회 내에 재해대책본부 및 재해지원대를 설치하고 지진 및 쓰나미에 의한 각지의 피해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피해지역에 지방협회별로 6차례의 ‘재해지원대’를 파견하였다. 파견된 재해지원대는 피해지역의 야간 방범 순찰활동, 교통질서 회복지원, 시설 및 점포에 대한 방법활동, 현금 자동지급기(ATM)에 대한 방법대책 등과 같은 피해복구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社)全國警備業協會, 2012).

3.4.1 야간 방범 순찰활동

경비업협회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마다 재해지원대를 구성하여 야간 방범 순찰업무를 실시하였다. 동경, 치바, 오사카 등 많은 지역에서 경찰과 연계하여 경계업무를 실시하였다.

3.4.2 교통질서 회복지원

대지진으로 파손된 도로의 복원 및 손상된 신호기, 도로표지 등의 복원을 도모하며, 피해지역의 교통통제 및 운전자, 보행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각각의 해당지역에 적절한 신호체계를 점검하는 하는 한편, 통

행 안전을 위해 경찰과 함께 교통유도경비원 등을 활용한 교통통제 및 유도를 실시하였다.

3.4.3. 일본 (사)전국경비업협회 가맹회원들의 재해복구 지원금

재해가 발생한 3개의 현(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을 제외한 나머지 43개의 지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복원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57,235,618엔)하여 지원하였다.

3.4.4. 시설 및 점포에 대한 방법활동

시설경비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가맹회원들에게 (사)전국경비업협회는 경찰청과 연계를 더욱더 긴밀히 유지하여 편의점, 슈퍼마켓 등 각종 점포에 대한 경계활동을 더욱더 철저하게 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방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청의 권유에 따라 방법카메라를 증설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3.4.5. 현금 자동지급기(ATM)에 대한 방법대책

재해지역의 금융기관,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 자동지급기에 대한 범죄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경비업자가 방법카메라 설치 및 순찰근무 빈도수를 높이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사)전국경비업협회는 기존의 현금 자동지급기에 설치된 방법카메라의 성능보다 향상된 방법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가맹회원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3.4.6. 주택에 대한 방법대책

주택 및 주변의 안전을 위해 (사)전국경비업협회의 주도로 피해지역에 대한 방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거주자들에게 범죄 정보나 지역안전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으며, 형식적이 아닌 철저한 방법활동을 하도록 가맹회원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있다.

3.4.7. 피해 복원기금사업을 활용한 고용창출

피해지역 재건을 위하여 마련된 정부의 기금을 활용하여 재해지역에 대한 범죄의 억제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연계하여 일상적인 경계활동까지 실시하는 긴급고용창출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치안활동

즉, 순찰 및 경계업무, 경비업무, 범죄정보 제공 등의 경계업무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경비인력 채용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사)전국경비업협회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각각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맹회사들에게 부적절한 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한 경비업계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의 이러한 대응은 재해지역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사회적 공헌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경비업자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5. 민간치안센터 모델

민간치안센터 모델은 경비업자가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입초나 순찰 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해 ‘民間交番’(이하 민간치안센터라 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나가노현(長野縣) 마쓰모토시(松本市)에서 경비업자가 2007년부터 ‘민간치안센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의 안전 확보에 공헌하기 위해 경비원을 24시간 체제로 상주시키고 입초경계와 순회패트롤활동, 어린이 보호활동, 지역주민과 연대한 야간합동순찰활동 외에 지역안내나 간단한 문의에 대한 대응 등 폭넓은 활동을 하여, 이제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 유수의 관광지인 동시에 음식점 등이 다수 입지한 번화가로 치안 악화가 우려되는 松本市 중앙지구의 JR 마쓰모토 역(松本驛) 북측의 주차장 용지의 한쪽에 민간치안센터인 ‘안심플라자 이세이쵸(伊勢町)’를 설치하게 되었다. 안심플라자 이세이쵸는 목조단층 건물로 넓이는 약10m²이며, 내부에 있는 경비원의 모습이 항상 밖에서 보이도록 되어 있어 ‘보이는 경비에 의한 범죄억제’를 고려해 만들었다. 시설용지는 이 뜻에 찬동한 지역 기업이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다.

안심플라자 이세이쵸는 본래의 사업인 기계경비업무의 출동 대기 장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민간치안센터로서 다음과 일을 수행한다. ① 옥외 입초하여 지역주민에게 ‘보이는 방법활동’을 하여 범죄억제에 기여한다. 입초(立哨)는 1일4회, 1회당 30분, ② 옥내 좌초(座哨)는 1일7회, 1회당 60-90분으로 나누어 실시

한다. 이 범위 안에서 길안내 등을 하거나 부상자 등 구호가 필요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경찰이나 소방기관 등에 통보와 응급처치, 보호를 한다. ③ 정해진 지역을 3륜 바이크로 가두 순회하고 가두범죄 등의 억제, 미연방지에 노력한다. 가두순회는 1일 4회 1회당 30분, ④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들의 통학로를 통학시간대에 모두 바이크로 순회하고 아동안전을 지킨다. 바이크순회를 할 때는 바이크 뒤에 ‘아동안전순회중’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한다. 통학로 순회는 등하교시간대의 1일2회, 1회당 60분. 이상이 평일 1일의 기본적인 활동 내용이다. 나아가 이외에 지역주민, 경찰과 연대하여 야간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社)全國警備業協會, 2009b: 35-36).

2008년 7월 순회활동 중에는 넘어진 부상자를 발견하여 경찰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는 동시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 지역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도 있다.

우리의 경우 서울 중심부의 세종로파출소와 의주로파출소가 한때 여행사와 골프용품 등의 상업시설로 임대된 적이 있다. 의주로파출소 자리는 지금도 커피가게가 입주해 있다. 이 시설들은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치안센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비업은 안전·안심을 담당하는 생활안전산업으로서 사회에 정착하고, 경비업무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주민들에게 부응해 나가고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일본의 살인·강간·방화·강도 등 4대 흉악범죄가 2003년 1만3658건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6,996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민과 민간단체·민간경비의 자주적인 방법활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선일보, 2012.9.8).

일본의 지역사회 풀뿌리 범죄예방활동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안전·안심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과 민간 스스로가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 하에 순찰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치

단체와 경찰은 이를 뒷받침하고 범죄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조례는 단순히 순찰활동 등의 지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 사업자 및 자원봉사자가 모두 힘을 합쳐 자주적인 방법활동을 추진하는 방법공동체를 추구하는 근간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주민, 사업자의 책무와 추진체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는 주민 등이 하는 범죄방지를 위해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기위해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며, 경찰서장은 주민 등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범죄방지를 위해 자주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관할 구역에서 범죄발생 상황 등의 필요한 정보제공을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도로, 공원, 주택, 주차장, 주택 등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지침을 제정하고 주민과 사업자는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금융기관과 학교 등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도 이제 단순히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조례에서 벗어나 종합적이 체계적인 지역사회 방법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민간경비가 국민들로부터 안전·안심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사)전국경비업협회뿐만 아니라 민간경비업자들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것을 인정하고 성원한 것은 2003년 12월 개최된 ‘범죄대책 각료회의’에서 ‘범죄에 강한 사회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신변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경비업을 생활안전산업으로 활용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의 민경협력은 교육, 범죄예방, 방재 및 복구, 생활안전 등의 면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경협력에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G20회의 시 민간경비의 협력과 지원은 좋은 모델이 되었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경비협회를 비롯한 경비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국민의 안전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때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 지속인 성장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의 든든한 파트너로 동반성장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 [1] 田中智仁(2009), 『警備業の社會學』, 東京: 明石書店.
- [2] (社)全國警備業協會(2009a), “Security Time”, 10月號, Vol. 369, 東京: (社)全國警備業協會
- [2] (社)全國警備業協會(2009b), “Security Time”, 11月號, Vol. 370, 東京: (社)全國警備業協會
- [3] (社)全國警備業協會.(2010), “2009年度事業經過報告書”;(社)全國警備業協會(2011a), “Security Time”, 6月號, Vol. 390, 東京., (社)全國警備業協會. (2011b), (社)全國警備業協會 廣報資料, 東京: (社)全國警備業協會. (2012), “2011年度事業經過報告書”, (社)全國警備業協會.
- [4] 中本貴士(2012), (사)전국경비업협회 담당자 전화인터뷰. 2012. 8. 15.
- [5] 日本警察廳(2011), “平成23年における警備業の概況”, 東京: 警察廳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畫課.(2012), “平成23年における警備業の概況”, 東京: 警察廳生活安全局生活安全企畫課. 日本警備業法.
- [6] 위키피디아 재팬, www.ja.wikipedia.org.
- [7] 일본경찰청, www.npa.go.jp, 검색일: 2012. 8. 10
- [8] 공익재단법인 일본전국방법협회, <http://www.boha.n.or.jp>, 검색일: 2012. 10. 22.

[저자 소개]



안 황 권(Ahn, Hwang Kwon)

1981년 경기대학교
법정대학(행정학사)
1989년 경기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현재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e-mail : ahk@kgu.ac.kr



안 정 준(Ahn, Chung Joon)

1981년 경기대학교 (행정학사)
2004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정책학석사)
현재 경기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박사과정
e-mail : ajj9000@hanmail.net